‘상생노사’ 기업 경쟁력 높였다

광주경총 ‘제 11회 노사협력 대상’

■ (주)광주신세계

(주)광주신세계는 최근 3년간 노사 상호 간의 분쟁이나 고소·고발 사례가 없었으며, 인재양성·상생의 노사관계·사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라는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주)광주신세계는 노사협력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1130 면담제도(하루에 한 명 30분씩), 계층별 신뢰형성 교육, 현장관리자 신뢰지수 측정, 노사화합 대축제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인재 육성을 위해 사내 S-MBA 과정, 직무올림피아드, 송원대학과의 산학협력 유통대학 운영 등 직군별 전문 인력 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주)광주신세계는 지난해 8월 노동부로부터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주)광주신세계 오세호 지원팀장은 “앞으로는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회사 내에서의 사원들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행복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장환)와 (주)에스제이금속(대표이사 송형석)이 2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하는 ‘노사협력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노사협력 및 복리 후생, 생산성 향상 성과, 인재 개발 노력, 산업재해 예방, 지역사회 공헌도,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 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매년 수상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로 11회째다.

광주경영자총연합회는 2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11회 노사협력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조익준 (주)에스제이금속 사원대표, 송형석 〃 회장, 염홍섭 광주경영자총연합회장, 이장환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 김경배 〃 사원대표.

■ (주)에스제이금속

(주)에스제이금속은 정리해고, 전환배치, 비정규직이 없는 ‘3無 사업장’을 구축하는 등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주)에스제이금속은 자동차 기계부품 및 냉장고 부품을 만드는 업체로 2007년에는 품질경영과 환경경영분야에 대한 인증인 ISO 9001 및 ISO 14001도 획득한 견실한 중소기업이다.

(주)에스제이금속은 노사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에는 고용안정 실천을 위한 고용안정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단합된 노사문화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자랑스러운 SJ인상’ 등 포상제도를 비롯해 매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노사문화 개선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또 매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경영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한편 (주)에스제이 금속은 복지회관 건립,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생필품 전달 등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화재 1억원 이상 고소득 설계사 1,006명

작년보다 87% 늘어… 업계 최다

삼성화재가 현대, LIG, 동부 등 8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소득 설계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 LIG, 동부 등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억대 수입 설계사 수는 2천270명으로 전년의 1천343명에 비해 69.0% 증가했다.

삼성화재는 1천6명으로 전년보다 87.0%나 뛰었고 동부화재가 269명으로 120.5%, LIG손보는 205명으로 69.4%, 현대해상은 220명으로 34.1%, 메리츠화재는 104명으로 48.6% 늘었다.

특히 삼성화재의 경우 3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린 설계사가 무려 206명에 달했다.

삼성화재는 이같은 실적의 배경으로 영업여건과 근무환경이 다른 회사에 앞선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설계사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5.7년에 달하는 것은 자녀 대학 등록금,자녀 육아비 지원, 경조사 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삼성화재는 세계 최대 보험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미국 에이엠베스트사로부터 8년 연속 ‘A+’ 신용등급을 받는 등 빼어난 재무건전성으로 설계사들의 업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입소문을 탄데다 설계사가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1인 고소득 직종이기 때문에 업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설계사 신선아(삼성화재 순천지역단 고흥지점)씨는 수익을 보장해주는 고소득 직종이라는 점에 매료돼 남편을 업계로 이끌어 부부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씨는 “사업이 기울면서 난방비도 없었던 시절에 삼성화재가 희망이었다면 이제는 가족의 미래가 됐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은 ‘삼겹살데이’

대형마트 가격인하 100g 다시 900원대로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 축산협회와 양돈 농가들이 숫자 ‘3’이 겹치는 날이라 해서 정한 날이다. 대형마트들이 삼겹살 데이를 맞아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삼겹살 값이 또다시 100g당 900원대로 낮아졌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1일부터 3일까지 냉장 삼겹살을 100g당 950원에 판매하는 ‘삼겹살 데이, 삼겹살 초특가’ 행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3일에는 오후 4시와 6시 목심, 등심, 안심, 삼겹살, 앞다리, 뒷다리 등을 부위에 상관없이 100g당 980원에 판매하는 ‘웰빙 정육 한 마리 행사’를 마련한다.

롯데마트도 3일까지 제주점을 제외한 전국 점포에서 삼겹살을 최고 40%가량 싸게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도 지난달 27일부터 ‘3·3 데이’란 행사를 열어 점포별로 삼겹살 300㎏씩을 준비해 평상시보다 30% 할인한 100g당 1천48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부국철강 동탑산업훈장 등 5곳 수상

광주국세청 오늘 납세자의 날 행사

광주지방국세청은 제4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3일 오전 10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모범 납세자로 부국철강(대표이사 손일호)이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것을 비롯해 태전약품판매(대표이사 오영석) 산업포장, 남진건설(대표이사 김광아)이 대통령표창을, 에덴병원(원장 허정)과 홍보산업(대표이사 송재홍)이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이밖에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19명, 국세청장 표창 25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65명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목포세무서는 우수기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앞서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세금을 성실히 내고 국가재정 확보 등에 이바지한 관내 고액 납세자 44명(개인 22명, 법인 22개)에게 감사의 편지와 함께 기념품을 전달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세금을 아는 주간(2~6일)’을 설정해 ‘학생 세금 문예작품 및 UCC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새얼굴

“사원들 창의력으로 시너지 창출”

전 준 영 KT&G 전남본부장

“사원들이 ‘상상과 창의’를 바탕으로 ‘조직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일 취임한 전준영(53) KT&G 전남본부장은 “시장 상황에 맞게 조직을 변화시키고 이를 시스템화해야 개인과 조직이 발전한다”며 “변화를 두려워 말고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전 본부장은 서울 숭문고와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본사 기조실 부장, 마케팅 국장, 북서울 본부장, 전북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